

나의 목자

김영란 | 월간 창조문에 신인작가로 등단, 격월간 좋은문학 신인상, 시향작가 문예대전 문학상 수상, 목원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한민대학교 및 한남대학교 대학원 출강, 꿈샘어린이집 원장, 논산교회 영아반 담당 교육 간사, 논산시 YWCA 이사

얼어붙은 동토
굳어진 약대의 발굽
야곱의 줄기
영감어린 새벽별의 설렘
사랑과 증보의 강보에 싸여
순결한 동정녀 초월자를 낳으셨다.

동방의 세 등불
헤롯의 싸늘한 눈초리
높은 보좌 버리고
구유에 눕혀진 아기 예수
베들레헴 에텐을 여셨다.

해거름 황망한 길목
등 굽은 낮달을 닮은 내 아버지
자주색 핏빛으로 물들인 아픔의 보릿고개
대지마저 췌디 췌은 전쟁 중에 태어나시다.



오동은 천년 늙어도 가락 지니며
매화는 평생 살아도 향기 팔지 않듯
순수 향한 겸허히 흔들고 있는 백기
흙모와 보은으로 달궈진 신앙 신용 신실
낮은 데로만 흘러 닳아진 무릎
겨울나무 표피 같은 영혼 깨우시더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 물빛 하늘에 닿다.

백합화 순결을 담아내시던 내 아버지 새
눈물로 키워온 생명의 발아(發芽)
어둡고 가난한 땅 천상의 은총
별들의 창조주 날마다 선포하시니
순백의 평화로 오신 사랑과 닮으셨다.

